**성령 충만과 지혜의 삶**

**<에베소서 5장 14-18절>**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은 부활절 이후 일곱 번째 주일에 맞는 성령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사랑 안에서 마치 한 몸처럼 교제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땅을 살다 가셨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존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존재를 알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자 오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까이로 오십니다.

때문에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그들과 오순절 이후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 성령 충만의 체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있는 증인들로 변모시켰습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현상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행5:29-32)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의 명령과 약속은 그 초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

사도행전 2장 38-39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 드렸던 예화이지만 유익이 될 듯싶어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 교회에 성령 운동을 일으키자 그의 모교인 옥스포드대학에서 교수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성인인 자기들에게 이런 설교 제목은 곤란하다고 난감해 하는 최고 석학들 앞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 5천 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대학의 교수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히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성령 충만의 명령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또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한다는 의미 이전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해주시길 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이 내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려주시길 진정 원합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진정 바랍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갈망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성령 충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청년들과의 성경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고난이 다 비켜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힘들게 살 것을 요구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모를 때가 더 좋았다. 모르고 안 하면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라도 댈 텐데, 뭐가 뭔지 알고 나니 이제 그걸 무시하며 살 수도 없고, 따라 살자니 힘에 부치고,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만약 지금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각자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추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심판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주님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있는 상벌이 주어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르는 것이 다행이 아니라 모르면 불행한 것입니다. 모르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서 받은 한 므나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저 수건에 싸 두었다가 후에 주인에게 그걸 그대로 내밀었던 종의 최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어떤 보상은커녕 그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가 당한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무지’와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주는 것은 없으면서 많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악덕기업주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주인에 대해 이런 오해와 불평을 갖게 된 것은 주인에게 반역을 꾀하는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두 종은 그 주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고,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주인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성실히 행한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받은 한 므나가 열 므나가 되었고 또한 다섯 므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함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몰라서 못 한 사람보다 알면서 안 한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몰라서 못 했다고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비쳐졌습니다.

무엇이 지혜롭고 옳은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까이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힘들다고 다시 예전의 무지하고 무익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더욱 담대히 나아갑시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이 곧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흐르며 점점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욕심을 따라 허망한 데 이끌리고, 은혜가 식어지며 불평이 잦아지고,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지혜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의 길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애쓰지 않으면 헛되고 무익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월을 낭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1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바른 판단과 실천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깨닫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능히 볼 수 있고 또한 감사히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묵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 약 사백 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주민들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농사 진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에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갈 뜻을 전하자 그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숨어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건드린단 말입니까?”

지금 다윗 일행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가 이 그일라 일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고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번 같은 대답을 듣고 결국 다윗 일행은 크게 결심하고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자 사울은 군사를 모아 다윗을 칠 준비를 합니다.

예상 못 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근심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울 왕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그 사울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넘기리라”

결국 다윗은 그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거기를 떠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육백 명과 함께 급히 그일라를 떠나 그저 “갈 수 있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거기로 가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논평이 붙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삼상23:14)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까?

결국 다윗의 참모들이 했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를 따라 그일라 일에 개입하는 바람에 공동체 전체가 죽을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보자면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겪어야 했고, 배신감도 느껴야 했고,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의 자질을 갖추어 갔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 가까이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물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일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며,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일이 더욱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좋습니다. 사시는 중에 어느 순간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 잠시 잠깐의 침묵과 교제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과 지혜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가 줄 수 있는 답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문이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삶에서 결연히 돌아서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합니다. 걸음도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에 취해 있는 사람, 무언가 다른 것을 탐닉하거나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길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합니다. 거기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똑바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삶의 길로 똑바로 걸어갑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걸어가신 참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참 지혜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